

清淨環境의 創造 —

KAF (株) KAF ENGINEERING
Korean Air Filter & Engineering

TEL : (02) 356~4755 (代表) FAX : 355~4755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현재, 실내환경의 청정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한창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빌딩에서 나타나는 빌딩증후군은 심각한 실내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때 각각의 실내 특성에 맞는 공기청정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株) KAF Engineering(대표이사 이명진)는 1984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실내 환경오염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환경기준이 법제화 되어있는 선진국들의 공기청정 System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여년간의 많은 투자 및 R & D의 노력으로 초기에는 주로 수입 완제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Filter류, 각종 Cleaner 등을 점차적으로 국산화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거의 국산화의 정착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오염을 청정화시키고자 AHU내의 Filter 사용과 상업용 Air Cleaner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직업병이 문제되는 작업환경의 유해가스, 미스트, 냄새, 분진을 제거하는 산업용 Air Cleaner 장비도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밀가공, 반도체, 전자기기, 컴퓨터기기등 전자, 기계, 항공분야의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불량, 고장, 수명단축등의 문제로 보호용 Cleaner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

KAF社는 기술제휴등으로 COSA/TRON(대전 미립자 중성화집진장치)을 도입, 필터에만 의존하던 국내 공기청정기술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기청정 System은 Filter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Filter로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성분진과 가스상 물질에는 청정효과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내의 공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미립자를 중성화하여 포집하는 원리를 이용한 COSA/TRON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보다 효과적인 공기청정장치로서 공조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까지 제거합니다.

COSA/TRON의 원리는 미세분진(1미크론 이하)을 중성화시켜 흡수 응집하여 크게된 입자를 Filter에 포집시키므로 실내에 그으름을 발생치 않는 깨끗한 공기청정 방식이며 가스흡착능력이 우수하며 CO₂(탄산가스)흡착능력이 있는 차세대적 공기청정장치입니다.

냉난방 코일, Duct, 공조기내의 오염부착에 의한 퇴적현상을 막아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2차 공기오염의 방지,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담배연기, 포름알데히드, CO₂, 냄새, 세균, 인체에 유해한 호흡성분진, 정전기의 제거등 그 잇점이 많은 공기청정장치입

니다.

(주)KAF社는 실내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한 높은 효율과 효과를 지닌 공기청정 System을 개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기청정 System의 설계, 공기환기 Clean Room 등의 설계 시공, 시운전, A/S까지의 체제를 갖추고 공기청정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KAF社는 현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주적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해외의 선진기술선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주)KAF의 전직원은 오늘도 쾌적한 실내 공기를 보급하겠다는 결의 아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 전자部品研 핵심技術분야 2백 30억 投入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소장 金定德)는 올해 2백30여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핵심 부품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연구인력의 보강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품研은 최근 올해 사업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 TDMA 유럽형 이동통신단말기 및 핵심부품기술을 비롯 △ 멀티미디어 기술 △ CATV시스템운영 및 시험평가사업 △ 차세대 디지털 VCR/캠코더 개발등 4대 中期 핵심거점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부품研은 특히 금성통신등 4개사와 협력, 내년까지 총 3백39억원을 투입해 TDMA 유럽형 이동통신 단말기 및 핵심부품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체 개발하는 한편 98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입, 家電4社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디지털 VCR 및 캠코더 프로젝트를 5월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부품研은 또한 기업체의 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유니크테크놀로지社와 함께 전광판 드라이버용 ASIC을 개발하는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ASIC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신성기연과 공동으로 광부품 및 관련기술을 공동개발하는등 10개 과제의 기업애로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부품研은 또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안정을 지원키 위해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품목을 올해 20개로 두배이상 늘리기로 했다.